



탐정 :

# 조사(調査)와 결합(結合)



글. 김상순  
변호사, 이화여대 로스쿨 겸임교수



연기자들의 세계는 그렇다 한다. 극에서 맡은 역할의 개성이 너무 강하면, 최선의 연기를 위해 몰입할수록 작품이 끝난 후 배우가 겪는 후유증이 생각보다 크다고 한다. 시는 시인이 그 시를 짓던 그 순간의 심정일 때, 가장 와 닿는다고 하던가. 마찬가지로 배우들은 실감 나는 연기를 하기 위해, 아니 극 중 인물과 하나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럴수록 연기는 자연스럽게 관객의 마음을 흠뻑 적실 만큼 실감 난다. 열연(熱演)은 그렇게 나온다.

배우만 그럴까. 변호사로서의 직업을 수행할 때도 그런 경우가 있다. 사건에 휘말려 사회적으로 추락하고 있는 사람의 '변호인'이 되어, 무죄를 확신하여 도와주고 싶어지는 형사사건의 경우나, 그의 전 재산이 날아가지 않도록 '소송대리인'으로서 열심히 주장을 입증해야 하는 민사사건의 경우, 온 시간을 사건에 쏟는다. 명변론(名辯論)과 열연은 그 점에선 닮았다.

무죄든 청구기각이든 일단 결론이 나고 나의 직업적 역할이 끝난 경우에는, 의뢰인의 삶에서 이제 그만 나와야 하는데, 프로답지 않게 감정이 입혔던 경우에는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다. 탈출 방법으로 손쉬운 것이 다들 그렇듯 술이다. 예컨대 세간의 따가운 시선을 받는 폭탄주이지만, 최소한 들이키는 그 순간만큼은 신산(辛酸)한 '직업으로서의 법'과 잠시의 이별 순간이다. 건강을 위하여 다른 방법을 찾은 것이 스크린과의 만남인 '영화'이다.

극장이라는 제한되고 어두운 공간 내에서 실재 없이 집중을 방해하는 메시지와 메일을 피해 기꺼이 스마트폰을 끈다. 누군가의 인생을 다른

영화 속으로 들어가서 1인칭 시점과 3인칭 시점을 번갈아 지켜보며 두어 시간 전후 머물다가 나오는 것이다. 영화는 항상 누군가의 인생을 다룬다. 감독은 감독 자신의 눈으로 영화를 만들고 관객은 관객 자신의 눈으로 영화를 감상한다. 관객은 생활인과 직업인, 두 개의 관점을 번갈아 사용하며 영화를 지켜본다.

‘법률가의 관점에서 작성한 영화 리뷰’. 원고 청탁을 처음 받았을 때, 처음 들었던 계간 『언론중재』의 「Movie with Legal Mind」 코너에 대한 첫 설명이었다. 법률적 사고방식을 통해서 바라본 영화. 즉, 직업인의 관점에서의 영화감상 후기를 요청받았다. 의상 디자이너라면 등장인물들의 복식(服飾)을 유심히 살필 것이고, 음악에 조예가 깊은 사람이라면 영화음악에 더 귀를 쫓긋 세울 것이다. 그렇다면 법률가로서, 직업인으로서의 영화 보기는 어때야 하는 걸까?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할 때, ‘법률가’란 ‘법률을 연구하여 법률의 해석, 제도, 적용 따위에 종사하는 전문가’를 의미하고, 같은 뜻으로 율사라 부른다 한다. 소송과정에서 법을 적용하는 방식에 따라 흔히 법조삼륜(法曹三輪)이라 불리는 판사, 검사, 변호사라는 율사 직업군은 각각 다른 관점에서 법률에 접근한다. 재판이라는 절차에서 세 직업군은 만난다.

분쟁해결의 또 다른 이름인 재판절차는 ‘사실확정 단계’와 ‘법리적용 단계’ 등 두 단계를 거친다. 즉, 법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실(事實, fact)을 확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사실은 증거에 의하여 정해진다. 그렇다. 구체적 사실을 다루지 않는 규범은 공허하다. 증거 없는 재판은 자의에 불과하다.

산재해 있어 얼핏 의미 없어 보이는 사실들과 진술들, 물건들을 조사하고 관찰하여 의미를 부여하여 물증과 증인을 만들어 내는 것. 그리고 그 의미들을 결합하여 또 다른 의미를 만들어 내는 일. 재판에서는 이러한 사실확정이 매우 중요하다. 자료들을 수집하고 조사하고 각종 학문적 지식(예컨대, 의학, 약학, 해부학, 화학, 동물학, 곤충학, 약초학, 심리학, 기계공학 등등)을 이용하여 그 의미를 결합하여 증거로 만드는 첫 단계. 이번 봄호에선 그 첫 단계에 관해서 이야기하려 한다.

그 첫 단계에 종사하는 사람을 소설이나 영화에서는 ‘탐정’이라 불린다. 그렇다. 탐정이 등장하는 영화 이야기를 하려 한다.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등장하는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분류코드 : 75330)’은, ‘개인 및 사업체에 관련된 각종 정보를 조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그 예시로 ‘홍신소, 사설탐정 서비스, 필체감정, 지문조사 서비스, 거짓말탐지기 서비스’를 적고 있다. 몇 번 법안이 발의된 적은 있지만, 아직 현행법상으로는 정면으로 규율하고 있는 법률은 없다.

사전적 의미로 탐정이란 직업은 ‘드러나지 않은 사정을 몰래 살펴 알아내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홍신소란, ‘고객의 요청에 따라 대가를 받고 기업이나 개인의 신용, 재산 상태, 개인적인 비

● MOVIE WITH LEGAL MIND

행 따위를 몰래 조사하여 알려 주는 일을 하는 사설 기관'을 말한다. 국어사전은 이 직업에 대해선 그리 호의적이지 않아 보인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소설 속의 대표적인 명탐정은 코난 도일(Conan Doyle)의 명저 『셜록 홈즈』다. 셜록 홈즈(Sherlock Holmes)는 그의 친구인 의사 왓슨(John H. Watson)과 함께 여러 사건을 해결한다. 『셜록 홈즈』는 탐정이야기의 전범이라 할 만하다. 아무렴, 탐정물은 어떤 형태로든 『셜록 홈즈』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있다. 따르거나, 비틀거나.

이 때문에 대부분 탐정영화는 주연인 탐정과 함께 이 사건을 해결하는 조연인 친구가 등장한다. 직관, 탐지, 추리, 격투 등의 각종 기술요소를 분담하여 주연과 조연 캐릭터가 영화를 이끈다. 상대 역인 악역이 있고 주연의 이성 파트너가 등장한다. 악역 캐릭터가 생생할수록, 이성 파트너가 매력적일수록, 영화의 흥행은 가속도가 붙는다.

2009년 연말에 개봉된, 가수 마돈나의 전(前) 남편인 가이 리치(Guy Stuart Ritchie) 감독의 영화 『셜록 홈즈』. 마블 코믹스 동명의 만화를 영화화한 『아이언맨(Iron man)』 시리즈로 유명한 배우



2009년 개봉한 영화 『셜록 홈즈』 포스터  
(출처 : 네이버 영화[movie.naver.com])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Robert John Downey Jr.)가 명탐정 셜록 홈즈 역할을 맡았다. 그를 도와 사건을 함께 해결하는 왓슨 박사 역할은 영국 배우 주드 로(Jude Law)가 맡았다. 영국 의회를 장악하려는 악당으로 '블랙 우드 경'이 등장하고, '셜록 홈즈'의 이성 파트너 역인 '아 이런 애들러'가 등장한다.

이 영화는 같은 감독에 의해 2011년 연말에 후속작 『셜록 홈즈 : 그림자 게임』이 개봉되었다. 후속작에서는 한층 더 강력해진 악당으로 세계전쟁 유발을 꿈꾸는 '제임스 모리어티' 교수가 등장한다. 셜록 홈즈는 1편에선 영국을 구하고, 2편에서는 유럽을 구한다. 천재적인 상황판단을 하는 두뇌와 멋진 격투술을 펼치는 신체를 가진 영웅으로 등장한다.

시선을 중국으로 돌리자면, 당나라 때의 실존인물이라는 '적인걸(狄仁傑)'을 주인공으로 하는 중국 탐정영화가 있다. 2010년 연말 『적

인걸 : 축천무후의 비밀』이 국내에 개봉되었다. 그리고 2013년 가을 『적인걸2 : 신도해왕의 비밀』이 개봉되었다. 두 편 모두 서극(徐克) 감독이 만들었다.

적인걸 시리즈는 1편보다는 2편에 이르러서 좀 더 '셜록 홈즈' 도식에 충실해졌다. 1편에서는 '적인걸'과 '사타충'의 대결구도였는데, 2편에서는 바뀌었다. 셜록 홈즈에 대응해서 '적인걸'이 주인공으로, 왓슨 박사에 대응하여 의공(醫工) '사타충'이 주인공을 돕는 조연으로, 악역엔 '곽사'라는 반당나라 세력이 등장한다. 악역을 바꾸어 가면서 계속 시리즈로 나올 기세다.

우리나라는 2011년 연초에 개봉된 김석운 감독의 『조선명탐정 : 각시투구꽃의 비밀』. 개봉 당시, '조선명탐정'이라는 제목보다는 '각시투구꽃'은 무슨 꽃일까 하는 의문이 먼저 들었다. 이런 의문이 든다면 탄탄한 스토리를 가진 원작이 존재한다는 반증이기도 한데, 원작은 『열녀문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역사추리소설이다. 주인공인 명탐정役に 김명민, 주인공을 보좌하는 개장수役に 오달수가 등장한다. 이성 파트너라 할 한객주역을 한지민이, 악역 임판서역을 이재용이 맡았다.

주인공인 김명민의 극중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극중 내용은 다산 정약용을 연상케 한다) 캐릭터화, 브랜드화에 한계가 있는 점은 아쉽다. 작품명을 영문으로는 『Detective K』라고 쓰는 모양인데, 이름이 필요하다. 시인 김춘수의 말대로 부를 수 있어야 나의 꽃이 되는 것

아니겠는가. 『어린 왕자』의 말따마나 그럴 수 있어야 비로소 나만의 장미꽃이 되는 것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탐정 '캐릭터'의 부재는, 앞의 중국판 셜록 홈즈인 『적인걸』에 비교해도 아쉽다.

소설 『셜록 홈즈』는 영화 이외에도 TV 드라마 시리즈로도 만들어졌는데, 영국드라마 - 줄여서 '영드'라 불리는 - 마니아 층을 만들었고, 덩달아 주연 배우인 베네딕트 컴버배치(Benedict Cumberbatch)와 마틴 프리먼(Martin Freeman)의 인기도 더욱 높아졌다. 21세기판으로 극 중 시대 배경을 변경시켰지만, 원작의 캐릭터의 특징을 잘 지켰다. 자신의 홈페이지를 직접 운영하면서 이메일과 스마트폰을 쓰는 현대판 셜록 홈즈 캐릭터를 매력적으로 창조했다.



중국의 탐정영화 『적인걸2 : 신도해왕의 비밀』 포스터  
(출처 : 네이버 영화[movie.naver.com])



조선을 배경으로 한 탐정영화인 『조선명탐정: 각시투구꽃의 비밀』 포스터 (출처: 네이버 영화[movie.naver.com])

아닌지 의뢰인은 잘 모르기에, 법적으로 유의미한 사실을 말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형사사건이라면 피고인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소송기록에 등장하는 사건 현장을 때로는 수차례 직접 가 보아야 한다. 인적이 드물지 않은 곳이어서 유리한 증인이 있을 가능성은 없는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이 모순되는 점은 없는지 등 여러 가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탐정영화에서 볼거리 중 하나는 극 중 배치된 여러 증거를 어떻게 결합하여 그 의미를 추출해내느냐이다. 결합과정이 기발하지만, 설득력 있을수록 몰입도는 배가 된다. 앞서 소개한 세 영화에서도 이를 다룬 장면이 여러 번 등장한다. 관찰력과 직관력, 탐지력은 탐정뿐 아니라, 사법경찰관 및 검사에게도 중요하다. 범행을 부인하는 피의자가 정말 억울한지, 비상한 두뇌 회전으로 알리바이를 만들면서 수사에 혼선을 주고 있는지, 적시에 파악해야 한다. 피의자 진술 불일치를 따져야 하고, 억울한 피고인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판단력은 판사에게도 중요하다. 다만, 형사소송의 경우에는 증거법칙에 따른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유무죄를 결정하여야 하므로 판사 개인의 관찰력과 판단에 의존하기엔 한계가 있다. 『조선명탐정: 각시투구꽃의 비밀』에는 이른바 ‘원님 재판’이 등장한다. “네 죄를 내가 알렸다”, “얼른 이실직고

영화 『적인걸』 또한 TV 드라마 시리즈도 만들어져서 인기가 높다. 케이블 TV를 포함하여 우리나라도 탐정이 등장하는 여러 드라마가 제작됐지만, 이른바 ‘국민 캐릭터’라 부를 만한 지명도를 가진 탐정은 없는 듯 싶다. 일본에서 탐정을 다룬 소설 『비블리아 고서당의 사건 수첩』은 설록 홈즈의 구도를 비틀어 여성 탐정을 전면에 세웠다. 여주인공 ‘시노카와 시오리코’와 남자 조연 ‘고우라 다이스케’의 구도로 고서적을 둘러싼 사건이라는 독특한 소재를 다루고 있고, TV 드라마 시리즈로도 만들어졌다. 매회별 소재로 다루는 이름난 문학작품도 눈길을 끈다.

관찰력과 결합능력 등은 탐정뿐 아니라 변호사에게도 중요하다. 민사사건이라면 의뢰인의 행간을 읽기 위해서 변호사는 뛰어난 관찰력을 가져야 한다. 법적으로 중요한 사실인지

하지 못할까”, “죄인을 하옥하라.”라는 ‘사또 나으리’의 대사가 나오는 전형적인 옛 재판이 등장한다. 형사소송의 발전단계에 관하여 강학상 등장하는 규문주의(糾問主義)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소추기관과 심판기관을 분리한 것을 ‘탄핵주의(彈劾主義)’라 부르고, 재판에 넘기는 주체와 재판을 하는 주체가 동일하여 집중된 경우를 ‘규문주의’라 부른다. 형사소송법의 역사는 규문주의를 극복하고 탄핵주의의 방향으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인권을 더욱 보장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발전되었다.

사실관계 또는 증거의 수집과 분석을 다루는 영화는 아주 많다. 고전물에서는 ‘탐정’이, 현대물에서는 ‘과학수사팀’이 맡는다. 하지만, 이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스토리를 이끌어 나가려면 역시 탐정이 제격이지만, 탐정영화는 체포 이전까지만을 다룬다. 어떻게 범인을 잡는지, 얼마나 범인과의 대결구도가 긴장감 있는지, 그리고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추리해내느냐를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다. 그렇다면 범인 체포 이후는 어떻게 되는 걸까?

영화에 관한 글을 쓰면서, 영화의 필수요소랄 ‘예고편’이 등장 않을 수 없다. 잘 만들어진 예고편은 관객 수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다. 조사, 관찰, 수집, 결합 등 사실관계의 확정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 다음 번 여름호부터는 법리를 적용하는 역할을 맡은, 체포 이후 단계의 율사 직업군을 더 다룰 계획이다. ‘예고편’의 속성상, 아쉽게도 더 이상은 말씀드릴 수 없다. 여름에 볼 때까지 건강들 하시길 빈다.